



소비주역
MZ세대 공략
유통가 새단장
L1



Life

캐릭터 콜라버
신학기 가방
키즈시장 각축전
L2



2024 제약·바이오 포럼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2

2024년 10월 23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 향한 길 열린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
사료·간식 넘어 헬스케어·ICT로 확장
치료제, 의료기기 등 연구 현황 소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며 20조 원에 달하는 ‘펫코노미’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2년 기

준 62억 달러(약 8조5000억원)로 추산되며, 10년 뒤인 2032년에는 152억 달러(약 2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도 단순한 사료와 간식을 넘어, 치료제와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펫 보험, 정보통신기술(CT)까지 무한대로 확장되는 추세다.

〈메트로경제〉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하는 ‘2024 제약&바이오포럼’도 이런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는 현황이 소

개된다.

반려동물을 위한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의료계 현황도 공유된다. 아울러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의약품이 동물에게 안전하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짚어볼 예정이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계기로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 제약·바이오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15	축사 및 개회	이연주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5~14:40	강 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 전략
14:40~15:05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동물약품 클러스터 구축 및 추진 방안
15:05~15:30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 : 반려동물 의약품 및 산업에서의 오가노이드 활용 사례 및 전략
15:30~15:55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 동물 실험 없는 미래 - AFI가 함께 합니다
15:55~16:20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 알츠하이머병 신약 크리스탈라진의 중개연구에서 만난 반려견 치매
16:20~16:45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 : 반려동물의 방사선 암치료에 대하여
16:45~17:10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 원장 : 반려 동물 암치료, 무엇이 다를까요?



유종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국내 처음으로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기반 기업을 설립해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에 도전한 의료인이다. 오가노이드 기반 장 질환 재생치료제인 ‘아톰-C’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인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차그림오가노이드 센터 센터장과 차바이오메딕의학본부장을 거쳤다. 이후 오가노이드학회 총무이사 겸 산학협력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2017년 재생 치료제 조성 개발 특허 출원, 2018년 치료제 동결보관법 개발 및 이식 재료 개발 등 최근 5년간 오가노이드 관련 특허만 15건, 논문은 20여 편을 썼다.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은 경북대학교 수의미생물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수의미생물학 박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족위생연구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수의과대학 연구조교 과정을 거친 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동물 의약품 전문가다. 김 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가족위생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면역학 교수로 재임 중이며, 2020년 12월부터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을 지내고 있다.

한편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재단법인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은 동물용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고려대학교 생체공학공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 기술협동과정 의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그라스메디는 한의학과 의학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에 맞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박형준 연구소장은 그라스메디가 반려동물의 전생애주기 동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개체 별 맞춤 헬스케어 브랜드인 ‘유비벳(UB Vet)’을 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에서 오가노이드(줄기 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유사체) 분야와의 결합을 강조한 그는 이번 포럼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및 산업에서의 오가노이드 활용 사례 및 전략’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대표는 동물 복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비영리 단체를 직접 출범시켰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단체인 AFI는 현재 동물용 오가노이드를 활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 기준을 마련하는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처음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표준화 작업도 시작했다. AFI의 확장을 위해 아시아, 유럽, 미국 전역의 시리즈 A 바이오 기술 회사의 출시 전략을 주도해 1000여 명의 멤버십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바이오 기술 스타트업의 제품, 마케팅, 영업 및 운영 등을 교차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을 구축하면서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지엔티파마(GNT Pharma) 이진환 애니멀 헬스(Animal Health) 사업본부장은 아주대학교 신경과학 박사, 뉴로테크ND-07프로젝트 매니저 과정을 밟았다. 이후 미국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후 과정을 거친 뒤

같은 대학교 신경/마취과 조교수로 근무했다. 이진환 본부장은 유수 뇌신경 분야 저널에서 논문 30여개를 발표했으며, Stroke, Neuroscience 등 5개 저널에서 저널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지엔티파마에서 애니멀헬스사업본부와 연구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편, 지엔티파마는 신약 개발 센터 기업으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



‘반려동물 방사선 암 치료’ 발제를 맡은 경현태 아우라케어 공동대표는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정밀 가공 제어 기술 전문가다. 정밀 가공 제어는 반도체 제조 및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미세하고

정확한 작업을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석사 졸업 후에는 LS산전(옛 LG산전) 중앙연구소에서 표면실장부품(SMD) 기계팀장을 맡아 산업용 로봇 연구 개발 업무에 주력했다. 이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생산기업 에스티에서 시스템 사업부 전무를 지냈다. 현재 반려동물 방사선 암 치료기와 X선 촬영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 아우라케어 공동대표 이사를 맡아 반려동물 의료기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 원장



임윤지 원장은 28년차 수의사로, 16년 넘게 강아지와 고양이의 ‘암’ 치료에 집중해 온 수의학 전문가다. 국내 유일 반려동물 암 전문 기관으로 알려진 ‘VIP반려동물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임 원장은 일본동물병원협회 수

의내과 인정의이자 일본수의중앙학회 인정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이다. 일본에서도 수의중앙학회 자격증을 받은 외국인으로는 임윤지 원장이 유일하다. 임 원장은 반려동물 종양을 다루는 기존 외과 수술과는 차별화된 치료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앙학 전문 역량을 쏟으며 폭넓은 학술 활동과 강연도 펼치고 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야속한 가을비’ 1·2차전 순연에 발길 되돌리는 야구팬들 / 사진 뉴스스
▲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하루임차료 1억원 이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오타니 제치고 MVP 올랐다...엄마가 ‘한국인’이라는 이 선수
▲ 국제전 복귀한 안세영, 덴마크오픈 준우승 이후 오늘 귀국



▲ 펜싱 여자 사브르 주니어 월드컵, 내달 1~2일 부산서 개최 / 사진 뉴스스
▲ 쇼트트랙 김민우·강민지, 주니어 월드컵 선발전 남녀부 1위